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8~9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국제 금융 위기
3면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과
반전 운동
4~5면

다시 듣는 말시즘2007 ①



존 리즈
- 사회 변혁의 전략과 전술
10~12면

아주노동자
‘인간사냥’ 중단하라
16면

아베 참패의 의미
9면

서평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
- 계몽주의 종교 비판의 한계
14~15면

www.counterfire.or.kr

새롭게 개편된 <맞불>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맞불> 온라인 기사

세계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서브프라임 모기
지 금융 위기의 원인과 배경을 설명한다.

유엔의 다르푸르 군사 개입 계획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수단 다르푸르에
대한 유엔의 군사적 개입과 파병은 이라
크에서 그랬듯이 파국만을 낳을 것이라
고 경고한다.

타이 국민투표
지일스 지이 웅파콘이 타이 군부의 신자
유주적이고 비민주적인 개헌 국민투
표에 대해 폭로한다.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뉴코아 · 이랜드 파업에 연대하라

» 관련 기사 6~7, 16면

“인용해도 될까요?”

“이른바 386 가운데 싸가지 없는 X들이 얼마나 많으나. 그 X들 때문에 당이 망했다. 그 싸가지 없는 X들 다 도망갔으니 …”

— 열우당에 잔류한
김원웅의 한탄

“점령군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여자와 어린이, 남자를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살상하고 투옥했다. B52 폭격기의 날개 밑에 숨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이 나라에 와서 점령군을 돕는 자들이] …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죽일 것이다. … 아프간 정부와 한국 정부 모두 인질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

— 압둘라 잔 가즈니주
탈레반 사령관

“선진국은 국민 한 사람을 위해 전쟁에 불사하는 구조 작업을 한다.”

— 군사작전을
바라는 듯한 이명박

충북지사 정우택: “예전 관찰사였다면 관기(官妓: 기생)라도 하나 넣어드렸을 텐데”

이명박: “어제 온 게 정 지사가 보낸 거 아니었나?”

— 농담 속에 드러나는 본색

“세계 정당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

— 창조위원장 정대철도 인정하는
‘날림정당’ 대통합민주신당

“한국 노동계는 강경 투쟁 만능주의가 휩쓸고 있다. … 진짜 파국이 머지 않았다.”

— 이랜드 투쟁의 파장을
두려워하는 뉴라이트 홍진표

청소년: “오늘 우리는 악덕기업 이랜드를 비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랜드 직원: “사과해. 악덕기업 앞에 와서 악덕기업이라고 하면 기분 좋지?”

— 8월 10일 이랜드 규탄
청소년 기자회견 도중

반전 운동 탄압 중단하라

지난 8월 4일 경찰은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촛불 집회를 발미로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의 김광일 씨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경아 씨에게 소환장 발부를 결정했다. 소환 대상자들은 정부의 탄압에 항의해 출석을 거부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이번 탄압은 <조선일보>가 ‘반미 단체’로 ‘파병반대국민행동’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을 언급하며 “아프간의 비극을 반미 운동의 소재로 써 먹지 말라”고 ‘당부’한 뒤에 벌어졌다.

노심초사

그러나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2001년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은 아프가니스탄을 철저히 파괴했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가장 많은 군대를 파병해 점령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미국 정부다. 미국이 주도하는 점령 때문에 탈레반의 민간인 납치 살해(옳지 않은 방식이지만)가 벌어지고 있다.

우익은 이 사건이 제2의 여중생 압사 항의 시위처럼 번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파병을 추진한 장본인인 노무현 정부는 이



점령과 파병에 반대한 것이 ‘죄’인가?

사건으로 미국의 점령과 파병에 반대하는 운동이 힘을 얻고, 한미 동맹에 금이 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물리적 탄압으로 반전 운동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이다.

반전 운동은 정부의 탄압에 맞서 소환 대상자들을 적극 방어해야 한다. 동시에 ‘점령 종식’과 ‘한국군 즉각 철군’을 요구하며 더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김은영

개악 정보통신방법 — 국가보안법과 한 핏줄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했다가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보고 짜증이 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7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새 정보통신방법 때문이다. 개악된 정보통신방법에 따라, 1천1백50개 공공기관 등과 35개 포털 사이트·UCC 사업자·인터넷 언론이 운영하는 게시판에 글이나 UCC 등을 올리려면 실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실명으로 글을 쓰는 것은 토론방이나 기사 댓글란 만다 수없이 올라오는 익명의 무책임한 ‘악플’에 대한 하나의 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토론하기 전에 민중 검사부터 받으라’고 강제하는 것은 인터넷 검열을 강화할 뿐이다.

정부는 나아가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상의 모든 게시판 관리·운영자를 상대로 “불법 정보”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추가했다. “불법 정보”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 등을 말하며, 삭제 명령에 불응하면 사이트를 강제 폐쇄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인터넷 사찰은 이미 술한 국가보안법 희생자를 만들어 왔다. 가깝게는 지난 7월 9일, 북한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자료를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익 씨가 구속됐다.

형사처벌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며 고위 관료들은 자유훈게 북한을 왕래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토론조차 못하게 막는 것은 완전한 이중잣대다. 사법기관 판단 없이도 정보통신부가 손쉽게 국가보안법 칼날을 휘둘러 수 있게 한 개악법은 이 같은 마녀사냥에 날개를 달아 준 꼴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보 단체에 올라온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일삼아 왔다. 2001년에는 투쟁중이던 대우차

노동자들의 홈페이지를 폐쇄하려 했고, 자퇴한 청소년들의 사이트는 학교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폐쇄해 버렸다. 군대 반대 운동 홈페이지에는 이용 정지 2개월 명령을 내렸다.

정보통신부는 이번에도 개악 정보통신방법 시행을 앞두고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20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친북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나 박정희 송모회 등 보수단체의 박근혜·이명박 지지 선언은 내버려 두면서 보통 사람들이 후보와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명할 권리는 막는 선거 악법과 전 국민의 통신내역을 모조리 기록하겠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추진까지, 지배자들은 이중 삼중의 핏을 치고 있다.

진보 운동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이 괴물 같은 법들이 더 진화하기 전에 맞서 싸워야 한다.

송주

할머니 노동자들의 비참한 죽음

지난 8월 9일 경기도 의왕시 원진산업(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에서 코팅가열기가 폭발하면서 불이나 6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모두 60~70대 할머니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비상구도 없는 낡은 건물에서 고동스럽게 죽어갔다. 2명의 할머니는 3층에서 뛰어내리다 유리창에 찔려 죽었다.

할머니들은 죽기 전에도 끔찍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었다. 인화성 물질과 유독가

스가 가득한 공장은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턱턱 막히는 곳이었다. 할머니들은 “항상 두통을 달고 사셨다.” 이런 곳에서 잔업까지 하루에 10~12시간씩 주말도 없이 일했다. 그렇게 일하고도 임금은 80~90만 원에 불과했다. 이렇게 번 돈으로 할머니들은 병원비를 쓰고 집안의 생활비를 보태야 했다.

그래서 한 유족은 “노인네라고 무시당하고 혹사만 당하다가 돌아가셨다” 하고 묵

아 울었다. 다른 유족은 “신경통과 관절염으로 고생하면서도 진통제를 맞으며 계속 일을 했는데, 평생 일만하다 죽은 우리 언니 불쌍해서 어떻게 해” 하고 통곡했다.

이 같은 저임금과 악조건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노무현 정부의 노동부와 경찰은 여기까지 신경쓸 수 없었을 것이다. 뉴코아·이랜드 파업에서 아줌마 노동자들의 ‘불법 점거’를 비난하고 두 번이나 경찰력을 투입

하는 등의 일에 바빴을테니 말이다.

고령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악조건은 이 사회에서 일반적이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 시간은 전체 평균보다 37시간이나 많고, 월평균 급여도 85만 원에 불과하다.

이번 참극은 노무현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밀바닥 노동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 줬다.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거지같은 세상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뉴코아·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승리야말로 이런 비극을 없애는 길의 하나일 것이다.

전지윤

익숙한 위기의 변주곡

알렉스 캘리니코스

국제 금융시장에서 매우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자본주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장면이기도 하다.

간단히 말해, 지난 주말 많은 은행에서 돈이 바닥났다. 국제 금융시장은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줘야 돌아간다.

그런데 지난주 이 중요한 은행 간 거래 시장에서 돈줄이 말라붙은 것이다. 은행들은 미국의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부실 채권에 발목이 잡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은 신용불량자들에게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며 성장했다. 이론적으로는, 은행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 대한 대출을 부채담보부증권(CDOs)이라는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통합해서 이를 헤지펀드 등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올해 초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붕괴했다. 그 여파로 지난 몇 주간 금융시장은 사실상 공황 상태에 빠졌다. 결국 은행들은 판매할 수 없는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된 것이다.

금융시장은 여느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작동한다. 돈이 부족해지자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 따라서 중앙은행들은 시장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 은행들이 기피하는 부실

채권 때문에 몇몇 유럽 은행들이 곤경에 처하자, 유럽중앙은행이 먼저 대응에 나섰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주 목요일 9백50억 유로를 시장에 투입했고, (현재까지) 최악의 공황 상태를 보인 금요일에는 6백10억 유로를 투입했다.

개입을 보류한 미국중앙은행, 즉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겁먹은 딜러들한테 맹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금요일이 되자 연방준비제도이사회도 3백80억 달러를 풀어 모기지 증권을 사들였다.

위기의 동역학

사람들의 이목은 CDO를 비롯한 이른바 신용 파생상품들이 공황 상태를 만들어낸 것에 집중했

다. 그러나 이 복잡한 금융 공학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동역학은 매우 낮은 것들이다.

2000년대에 득세한 저금리 경향 덕분에 신용대출이 쉬워졌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듯한 모험적 사업에 대한 투자를 부추겼다.

저금리 신용대출이 실물경제 회복과 결합되면, 2000~2001년 이후 미국에서 그랬듯이, 심중팔구 진정한 고수익 사업 기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경기순환이 계속되면서 그런 확실한 투자처는 갈수록 줄어들었다.

나중에는 더 위험한 거래, 명백한 사기성 거래들이 인기를 끌게 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대표적이다. 중개인들은 모기지 판매에 열을 내느라 고객들

미국발 ‘신용경색 쇼크’

의 신용 상태를 조사하지 않았다.

55달러

드물게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주택 구입 희망자들은 www.verifyemployment.net 같은 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캘리포니아의 이 작은 회사에 55달러의 수수료만 내면 당신을 ‘자영 도급업자’로 채용해 대출을 받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회사는 당신의 소득을 입증할 ‘증빙서류’로 급여명세서를 제공하며, 25달러만 더 내면 당신의 채권자가 신용조회를 할 때 당신에 관해 좋은 말을 해 줄 사람도 제공한다” 하고 보도했다.

그러나 머지않아 거품은 터지게 마련이다. 영리한 투기꾼들의 요령은 언제 발을 뺄지 아는 것이다. 몇 주 전에 시티코프 회장 척 프린스는 이런 철학을 이렇게 표현했다. “춤이 끝나면 … 문제가 복잡해진다. 그러나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은 계속 서서 춤춰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춤추고 있다.” 춤이 끝났을 때 시티코프는 지난 달에 신용대출 시장에서 7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다.

불행히도 이것은 무도회가 아니다. 금융시장이 춤출 때 발생한 악성 투자 때문에 경제 전체가 불황으로 빠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계속 “근본[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말한다. 지난 토요일에 <파이낸셜 타임스>는 “경제 기초와 성장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보도했다.

지난 몇 년 간 세계경제가 상당히 빠르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신용호황 덕분에 지금 중국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저가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했다. 그리고 중국은 특히 독일과 일본에서 시설과 장비를 수입하고, 이 덕분에 독일과 일본 경제는 오랜 지지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국 경제는 여전히 세계 자본주의의 성장 엔진이다. 그런데 미국 경제는 지난 몇 주간의 신용경색 전부터 이미 둔화하고 있었다. 만약 각국 중앙은행들이 신속하게 금융 안정을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험난한 시기가 닥칠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한국 경제

8월 9일 프랑스 최대은행인 BNP파리바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투자했던 3개 펀드의 환매 중단을 선언하자,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위기에 빠졌다.

결국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해 캐나다, 일본, 스위스, 호주 등 주요국 7개 중앙은행이 8월 9~10일에 2천9백30억 달러(약 2백70조 원)의 긴급자금을 풀어 일단 급한 불길을 잡았다.

그러나 대형 금융기관들도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

게다가 미국뿐 아니라 중국 등에서도 부동산 시장 위기 조짐이 커지고 있다. 3조 위안(약 3백70조 원)에 달하는 중국의 주택담보대출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보다 훨씬 부실화 가능성이 높”으며 “머잖아 거품이 터질 위험이 있다.”(이선룽 중국과학원 금융연구소 연구원)

한국 정부는 한국 금융회사들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채권이 약 8천억 원밖에 안 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나 세계 금융시장 상황이 국내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신용경색

그러나 금융 시장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자금이 안전한 미국 국채 등에 쏠리면 한국의 주식·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8월 10일 코스피지수가 무려 80.19(4.2퍼센트)나 떨어져 약 40조 원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은 한국 경

제가 세계 경제에 깊숙이 편입돼 이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줬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찬양해 온 ‘세계화’와 금융 투기에 대한 규제 완화가 금융 위기의 ‘세계화’를 낳고 있는 것이다.

대출에 의존한 소비로 지탱해 온 미국 경제가 ‘신용경색’으로 인해 실물 경제마저 불황에 빠지면 미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미국과 중국 수출에 의존해 온 한국 경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전년 7월에 비해 올해 7월까지 수출이 20퍼센트 정도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었는데, “서브프라임 문제 때문에 미국의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을 경우 국내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이 감소해”(무역협회) 수출이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도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폭등에서 저금리 가계 대출이 지렛대 구

실을 했다. <매일경제>는 “한국에서도 저금리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할 위험”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2달 연속으로 콜금리를 인상해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3백조 원이 넘는 국내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2년 전 4.7퍼센트의 대출 금리로 1억 5천만 원을 빌린 사람의 경우, 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6.26퍼센트로 늘어나 이자 부담만 연간 2백34만 원이 늘어나기도 했다. 늘어난 이자 부담은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 부진도 심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경기 부진에 빠져 금리가 떨어지는 반면 일본 금리가 오르며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엔캐리 트레이드’(금리가 매우 낮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 이를 금리가 더 높은 나라들에 투자하는 것)가 이탈하고 이것은 한국의 주식·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겨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신용 경색은 낮은 이윤율로 허덕이는 한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강동훈

반전 운동의 성장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

이번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2004년 이라크에서 무장단체에 납치 살해된 故 김선일 씨 사건을 떠올렸다. 일부는 김선일 씨 피랍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속히 거리로 나와 반전 시위를 벌였고, 한국 정부에 즉각 철군 선언을 촉구했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러한 시위는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했다. 이러한 시위들이 없었고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과 이에 동참한 노무현 정부의 파병 정책의 책임을 사태 초기부터 낱알이 따져 묻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정부와 우파 언론들이 '쟁점 흐리기'를 통해 사태의 본질을 가리기가 훨씬 쉬웠을 것이다.

나아가 시위는 미국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 데도 일정한 구실을 했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지금 사태가 '제2의 효순이·미선이 사건'으로 번질까 노심초사하며 2002년 대선 패배의 악몽에 몸서리치고 있다.

물론 운동이 거둔 이러한 중요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이 만족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다. 특히 2004년 김선일 씨 피랍 당시의 운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왜 운동의 규모가 그 때에 훨씬 못 미치는가?' 하며 질문을 한다.

먼저, 우선 그 때와 지금은 객관적 조건, 특히 계급 세력 균형과 전체 운동의 자신감 수준에 차이가 있다.

2004년 6월 김선일 씨 피랍·살해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한국은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선 탄핵 반대 운동이라는 역사적 규모의 대중 동원과 승리를 경험한 직후였다. 우익은 완전히 찌그러들었고 운동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사기

당연히 이러한 분위기는 김선일 씨가 납치된 사실이 알려졌을 때 벌어진 운동의 대응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

그 때 많은 사람들이 열우당이 새로 다수당이 되고 민주노동당 의원 9명이 진출한 새 의회에 기대를 걸었고 정부의 파병 정책을 쉽게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노무현 정부의 파병 정책이 독자적 이해관계 보다는 단지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는 운동 내 다수파의 견해도 이러한 낙관을 부추겼다.

당시 이러한 기대와 낙관은 탄핵 반대 운동의 승리가 가져온 사기 고양과 결합돼 사람들이 파병 철회 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고무했다. 물론 머지않아 이것이 '환상'임이 드러났고 그러자 역으로 운동에 혼란과 사기저하가 찾아왔지만 말이다.

파병과 파병 재연장, 부시의 재선 등이 이어지며 반전 운동에 적극적이던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이 낙담해서 소극적 태도로 바뀌었고 이런 분위기는 아직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2004년 김선일 씨 피랍 당시 반전 집회 - 전체 운동의 자신감 덕분에 반전 운동의 규모도 컸다

둘째, 대중이 사태의 핵심을 명확히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 혼란이 존재한다.

이번에 피랍된 한국인들이 기독교 선교 활동과 연관돼 있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이번 피랍 사태를 보는 심경은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선교 책임론'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기도 한다.

이른바 '선교 책임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은 단일하지 않다. 우익은 정부의 파병 정책을 두둔하고 철군 요구를 묵살하기 위해 '선교 책임론'을 제기한다.

문제는 대체로 반전 운동의 대의에 우호적인 자유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지는 혼란이다. 이들은 한편으로 파병 문제를 지적하며 철군을 주장하지만 또한 그에 못지 않게 보수 기독교 교단의 선교 행태 비판에 초점을 맞춘다.

흔히 이러한 태도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식의 안하무인격 선교 활동은 물론 이를 주도하는 보수 기독교 교단의 더 광범한 부패와 우익적 행태에 대한 뿌리 깊은 그리고 이해할 만한 반감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그 배경이야 무엇이든 결국 이러한 태도는 현실에서 진정한 표적을 모호하게 만들 뿐이고 그 결과 실제 행동에 기권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십상이다.

사실 '선교 책임론'은 구체적인 정황을 따져 봤을 때 사실이 아니다. <뉴스위크> 등 여러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볼 때, 탈레

반은 자신들이 납치하려는 대상이 선교사라는 사실은커녕 한국인이라는 것조차 몰랐음이 분명하다. 한 마디로 피랍자들의 선교 활동(물론 실제 구체적 선교 활동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과 납치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얘기다.

탈레반의 납치를 우선적으로 심지어 더 중요하게 문제 삼는 태도 역시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진정한 표적을 모호하게 만들 뿐이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와 우익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물론 우리는 탈레반의 민간인 납치와 살해를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 반전 운동은 그러한 행동이 국제적 연대와 진정한 대중 운동 건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국내 일부 세력의 반미 선동은 탈레반을 도와 그들의 만행을 정당화시켜 주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더러운 데마고기일 뿐이다.

데마고기

그러나 우리는 탈레반의 극단적 저항 방식이 그보다 더 끔찍하고 야만적인 침략 전쟁과 점령에서 비롯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침략 전쟁과 점령, 이를 돕는 파병 정책의 종식만이 피랍자들을 구하고 계속되는 비극을 끝낼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이다. 탈레반이 일부 무고한 민간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 때문에 불법 침략

전쟁을 벌여 수만 명을 학살한 세력과 동등하게 비난하는 것은 결코 "공평무사"한 태도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주도하는 지도부들이 이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에 아쉬움이 있었다.

먼저 운동을 건설하는 초기에 지도부 중 상당수가 양비론에 휘둘리면서 운동의 표적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 배형규 목사가 살해된 뒤 치러진 집회에서 파병반대국민 행동 내의 대다수 단체들이 사실상 탈레반을 겨냥한 피랍자 석방 요구를 한국군 철군 요구보다 앞세운 것이나 최근 일부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 벌인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 등이 그렇다.

최근에는 NL 경향 동지들이 중심이 돼 '미국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미 대사관 앞 촛불 시위를 열고 있다. 이것은 반가운 일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문제를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의 핵심 고리로 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피랍 관련 시위 동원 규모는 한반도 관련 쟁점들보다 훨씬 적었다. 또, 노무현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발표 이후에는 관심의 초점을 그쪽으로 옮기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과 '테러와의 전쟁'이 부시 정부의 제국주의 전략에서 차지하는 중대한 위치를 고려할 때 아쉬운 일이다.

김용민

부시 · 노무현 정부야말로 “잔혹한 살인마”들이다

2명의 피랍자들이 풀려난 것은 정말 다행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왜 이리 오래 걸렸는가?’이다. 왜 한국 정부는 진작 탈레반과 ‘대면 협상’을 하지 않았을까? 피랍자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외무장관 송민순은 “[피랍자 석방에는] 평균 35일 정도가 걸렸다”며 무사태평한 소리나 늘어놓았고 노무현은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못 박았었다. 사실 이번 2명 석방에서도 한국 정부가 한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탈레반 대변인 아마디는 “관용과 선의의 표시”, “무조건적” 석방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는 최초의 피랍자가 살해되기 전에 즉각 철군을 선언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또, 두 번째 피랍자가 살해되기 전에 부시 정부에게 포로 교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시간적 여유도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에게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부시와 공조를 계속 유지하고 한국 정부가 결코 무너지 않다는 것을 세계 지배자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23명의 생명보다 더 소중했다.

노무현 정부는 살인 정부라는 오명을 결코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오무전기 노동자들, 김선일 씨, 윤장호 병장에 이어 노무현의 손에는 2명의 피가 더 묻었다.

부시 정부도 생명을 가버이 여기는 “잔혹한 살인자”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 줬다.

피랍자 가족들은 부시-카르자이 정상회담에서 돌파구가 열리고 미국 정부가 포로 교환 요구를 수용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부시는 탈레반을 “잔혹한 살인마”라고 비난

하면서 긴장을 더 심화시켰을 뿐이다.

피랍자 가족 서정배 씨는 “잔뜩 기대하고 지켜봤으나 인간의 고귀한 생명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하고 절규했다. 한 피랍자 어머니는 “어떻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가 있나” 하며 몸부림치다가 졸도했다.

부시는 탈레반에 대한 군사 작전 강화,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학살 등 피랍자들의 무사귀환을 가로 막는 행동을 연속적으로 취했다. 이것은 냉정하게 계산된 행위였다.

부시는 국내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

최근 부시와 그의 동맹군은 인질의 안위는 아랑곳 않고 탈레반 ‘소탕’을 강화하고 있다

다. 힐러리 클린턴, 바락 오바마, 빌 리처슨 등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부시와 달리 ‘진정한 테러와의 전쟁의 전장’인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개입 수위를 더 높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좀더 근본적으로, 이라크에서 패배하고 있는 부시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체면이 더 깎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문제에서 갈수록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랫동안 취

재 활동을 해 온 한 파키스탄 기자는 <연합 뉴스>와 인터뷰에서 “인질이 죽는 것이 탈레반과 싸우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정부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일이다. … 미국은 이번 사태가 탈레반의 잔혹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인 인질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다” 하고 폭로했다.

따라서 <조선일보>가 비난하는 “‘인질’을 이용하는 정치꾼”은 반전평화 운동 세력이 아니라 바로 부시 정부인 것이다.

김용욱

반전 운동의 과제

당면 운동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들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첫째, 노무현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단 한국군 파병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가장 근본적 원인이다. 피랍 사건을 주도한 가즈니 주(州) 탈레반 사령관 압둘라도 피랍 사건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우리 조국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에 의해 침략당했으며,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보내고 미국을 도운 모든 나라들은 우리를 억압하고 있어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탈레반과 가까운 파키스탄의 이슬람주의 정당인 ‘자미야트 울마에 이슬람’의 지도자 마울라나 파잘 우르 레흐만은 대통령 특사 백종천과 만난 자리에서 피랍자들을 구하고 싶다면 “한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조기 철군을 선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한국 정부가 즉각 철군을 선언

할 경우 피랍자 석방 협상이 급진전될 것이고 앞으로 한국민들이 아프가니스탄 저항세력의 목표가 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동시에 노무현 정부가 부시 정부에게 포로 교환에 나설 것을 요구하도록 압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민이 납치됐을 때 미국 정부에 포로 교환 수용을 요구했던 것처럼 말이다. 노무현이 그렇게 하게끔 운동이 압력을 넣어야 한다.

이것이 ‘노동자의 힘’ 등이 암시하듯 미국 책임론은 무망한 일이므로 노무현 정부만을 겨냥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당연히 미국 정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미국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라도 노무현 비판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를 향한 즉각 철군 요구는 부시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지하게 나서도록 하는 데도 매우 유효한 압력이 될 것이다.

둘째,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모든 양비론적 주장을 단호히 반박해야 한다. 피랍자 자신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나 탈레반에게 비극의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시도가 그렇다.

만약 2001년 9·11 테러가 벌어졌을 때 국제 반전 운동이 ‘테러 반대, 전쟁 반대’ 하는 식의 양비론적 태도를 취했다면 그토록 강력한 반전 운동이 건설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양비론

예컨대, 지난해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때 미국의 반전 운동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을 양비론적으로 비판하는 태도 때문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운동을 건설하는 데 실패한 반면 영국의 반전 운동은 즉각 미국과 이스라엘을 선명하게 비난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함으로써 ‘부시의 푸들’ 블레어의 퇴진을 결정적으로 앞당길 수 있었다. 지금 한국에서도 양비론적 태도보다는 단호하게 부시와 노무현 정부를 겨냥하는 것이 힘을 집중해 운동을 건설하는 데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테러와의 전쟁’이 항구적인 만큼 그에 맞서는 우리의 운동 또한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이 될 필요가 있다. 진정으로 미국 제국주의를 패배시키고 싶다면 미국 제국주의의 ‘악한 고리’인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테러와의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끝나든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 대선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효순이 미선이’ 살해 항의 시위가 커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문제의 핵심을 단단히 붙잡고 운동을 건설한다면 대선에서 진보 진영은 훨씬 유리한 지위에서 논쟁을 주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정한 대중 운동을 건설할 기회를 붙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김용민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대시민 홍보를 위한 촛불집회

일시: 매주 목요일 저녁
주최: 파병반대국민행동

강력한 연대 투쟁이 승리의 열쇠다

전지운

“경찰과 구사대에 짐승처럼 끌려나갔던 우리는 자본과 정부의 물리력도 굳건한 투쟁과 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승리하고 싶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 8백50만 비정규직의 절규가 멈추는 날이 하루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향하는 동지들의 마음 하나하나, 발길 하나하나가 우리를 지지하는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기필코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뉴코아 · 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

이것은 지난 7월 29일 강남점 2차 점거 파업에 들어가며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이 연대 투쟁을 호소했던 내용이다.

정말이지 뉴코아 · 이랜드 파업의 정치적 승리(관련기사 16면)를 요구안의 쟁점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강력하고 실질적인 연대다. 이미 이번 투쟁에서 민주노동당과 수많은 사회 · 정치 · 학생 단체들은 진정한 연대를 보여 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직력과 투쟁력을 갖춘 민주노총 조직 노동자들의 연대다. 만약 조직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해 파업 농성장을 사수하고, 강력한 연대 투쟁을 경고하고 있었다면 7월 31일 새벽에 여성 노동자들이 짓밟히고 끌려가는 것을 눈뜨고 지켜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 점에서 8월 16일 ‘이랜드 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1천명 선봉대’의 발대식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선봉대는 첫날 홈에버 목동점의 매출을 중단시키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고 앞으로도 15일간 이런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발대식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투쟁밖에 없다. 1천 명 선봉대원이 모두 감옥에 갈 때까지 투쟁한다”고 선언했다. 진영옥 수석부 위원장은 “여성 노동자들이 폭력 연행될 때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작 이처럼 조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다.

15개 산별노조 · 연맹 대표자와 상근 간부 · 활동가들로 구성된 선봉대는 힘겹게 싸워 온 여성 노동자들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을

것이다. 발대식에서 이옥순 르네상스호텔노조 위원장이 말했듯이 “존경스럽고 용감하고 멋진 민주노총 동지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이 말했듯이 1천 명 선봉대는 “민주노총 창고 속에 있는 여러 투쟁 무기 중 하나”일 뿐이다. 또 다른 무기인 전국노동자대회도 다가오고 있다.

이어서 8월 21일 이랜드 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특별대의원대회에서도 더 강력한 무기들이 채택되어야 한다. 우선 민주노총 지도부가 준비 중인 10억 투쟁기금 모금과 불매운동 결의는 당연히 통과되어야 한다. 저임금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두 달째 임금도 못 받고 손배 · 가압류 · 벌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무기

연대파업이 채택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을 것이다. 2005년 현대하이스코 노동자들의 점거파업 당시 민주노총 전남동부지구협의회는 5천여 명이 참가한 하루 연대파업을 건설한 바 있다. 2006년에도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하루 연대 파업으로 동국대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철회시킨 바 있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의 핵심 부대인 금속

노조 동지들이 앞장서야 한다. 홍윤경 이랜드일반노조 사무국장은 “금속노조 조합원 동지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 동지들의 관심과 참여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하고 호소했다. 비정규직 노조인 화물연대 · 덤프연대 등이 연대 투쟁에 앞장선다면 더욱 고무적일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문을 뛰어넘는 연대다.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보여 줬듯이, 업종과 지역을 뛰어넘는 연대가 필요하다.

추석 연휴나 심지어 성탄절까지 언급하며 ‘장기전’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투쟁을 장기화시켜 진을 빼는 것은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또, 불매운동은 연대 투쟁의 보조적 무기가 돼야지 그것을 핵심 무기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2000년 롯데호텔 파업 때 불매운동과 2005년부터 진행중인 GS칼텍스 불매운동을 봐도 불매운동이 핵심적 타격을 주진 못했다. 물건을 ‘안 사게’ 하

는 것보다 ‘못 팔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강력한 집회와 ‘매출 타격 투쟁’, 연대 파업 등이 중요하다.

이 투쟁의 승리를 바라는 모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지도부에게 더 강력한 연대 건설을 요구하고, 자신이 속한 곳에서 연대 확산을 위해 온갖 일들을 다해야 한다.

이랜드 사측은 얼마 전 폭로된 ‘민주노총 대응행동 지침’ 대외비 문건에서 “체면이고 뭐고 차릴 때가 아니다. …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발을 동동 굴렀다. 그동안 보수 언론들은 민주노총이 이 투쟁의 ‘배후세력’이라고 비난해 왔다.

이제 노무현과 박성수에게 민주노총이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의 막강한 ‘배후세력’임을 강력한 연대 투쟁으로 보여 줘야 한다.

이 투쟁이 승리하도록

민주노총은 1천 명 선봉대 발대식 기자회견문에서 이 투쟁은 “단순히 개별 자본과 개별 비정규 노동자간의 대립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와 보수정치의 비정규 악법을 갈아엎기 위한 절체절명의 투쟁”이라고 규정했다.

이랜드는 “비정규직 피눈물의 땅”이라고 불려 왔다. 이랜드 회장 박성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3개월 초단기 계약도 모자라 0개월 계약까지 강요했고, 지난해 문을 연 ‘2001아울렛’ 부평점은 전체 직원 1천 명 중 단 33명만 정규직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악법이 시행되면서 박성수는 8백 명 대량해고와 외주화, 정규직 노동자 전환배치 등을 시도했다. 이랜드 관리자들은 “비정규직 보호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고와 외주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 타겟”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랜드 사측은 비정규직 악법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이다. 반면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런 공격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의 강력한 단결 투쟁으로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회사에 몰매를 주고 백기향복을 강요하는 제2의 이랜드 사태가 속출할 것”을 걱정했다. 결국 “이번 사태가 비정규직법의 부정적인 지표처럼 보이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노동부장관 이상수)고 본 노무현 정부는 두 차례나 경찰력을 투입해서 이 투쟁을 파괴하려 했다.

홈에버 대표 오상훈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여기서 노조에 굴복하면 다

뉴코아 · 이랜드 투쟁이 보여 준 것

뉴코아 · 이랜드 투쟁은 노동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동안 억눌려 온 여성 노동자들이 투쟁 속에서 놀라운 용기와 잠재력을 보여 주었다.

구속된 김경옥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은 “모든 게 기적이었다. 아줌마 노동자의 힘이 장기 투쟁을 이끌어왔다. … 하루도 못 갈 줄 알았고, 아무런 준비조차 없어 이렇게 오래 진행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아줌마들의 의지 때문에 우리의 투쟁이 체계화됐다”고 했다.

한시적 점거(1박 2일)로 시작된 상암점 1차 점거를 무기한으로 이어간 힘도, 2차 점거의 성공도, 세 차례 이상 이어진 3차 점거 시도도 현장조합원들의 굽힐 줄 모르는 투지와 자발성에서 나왔다. 이것이 이번 투쟁의 진정한 원동력이었다.

이런 현장조합원들의 투지와 자발성을 뉴코아 · 이랜드 노조 지도부는 민주적으로 대변해 왔다. 특히 이랜드일반노조 지도부는 모든 사안을 분회 토론을 통해 묻고 결정하는 현장조합원 민주주의를 보여 줬다. 이것이 바로 이 투쟁이 그토록 강력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은 점거파업이 효과적인 무기임도 보여 줬다. 점거파업이 없었다면 박성수에게 5백억 원의 매출 타격을 입히지 못했을 것이다.

점거파업은 초점 구실을 하며 강력한 연대 투쟁을 촉발시켰다. 1차 점거파업은 민주노총의 7월 8일과 7월 21일 ‘매출 제로 투쟁’을 끌어냈다. 2차 점거파업은 민주노총의 8월 18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와 8월 21일 비상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결정을 끌어냈다.

또, 점거 파업은 시민 · 사회 단체의 지지를 모아냈다. 점거농성장 앞에서 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연이어 박성수와 노무현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차 점거파업 때 강남점 앞에서는 매일 5백 i 1천여 명의 연대 동지들이 참여하는 연대 집회가 열렸고 수백여 명이 노숙 농성까지 했다.



“기적을 만들어온 투쟁”의 주역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점거파업의 정치적 효과였다. 점거파업은 뉴코아 · 이랜드 투쟁과 비정규직 문제를 전국적인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게 했다. 뉴코아 · 이랜드 파업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갈수록 커졌다. 이랜드 사측을 교섭테이블로 끌어내고 양보하는 시늉이라도 하게 만든 것도 점거파업이었다.

불꽃

노무현이 두 차례나 경찰력을 투입해 점거파업을 파괴한 것도 이런 효과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지와 자신감은 여전하다.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한 이랜드 조합원은 “[7월 31일 경찰력 침탈로 유치장에 갇혀서도] ‘빨리 나가서 다시 점거해야 하는데’라는 생각밖에 없었다”

고 했다. 8월 7일 이랜드일반노조 수련회에서도 조합원들은 ‘제3 거점 마련’을 ‘가장 필요한 점’으로 꼽았다.

지난 2주간 거듭된 3차 점거 시도는 꺼지지 않는 투쟁의 불꽃을 보여 주며 박성수와 노무현의 등골을 오싹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점거만은 막겠다’는 노무현과 박성수의 필사적 발악으로 3차 점거 시도는 계속 무산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경찰이 도 · 감정과 핸드폰 위치추적까지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의 강력한 연대 투쟁이 절실한 때다. 이제 민주노총의 강력한 연대 투쟁이 핵심 고리이고 승리의 열쇠다.

이 뜨거운 여름을 현장 민주주의에 기반한 강력한 점거 파업으로 달려 온 여성 투사들에게서 이제 민주노총 조직 노동자들이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다.

연대하는 게 왜 중요한가

른 기업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 우리가 경영계 대표가 된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은 뉴코아 · 이랜드 투쟁이,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면 다른 기업에도 연쇄적으로 투쟁과 승리라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동계 대표’ 투쟁이 됐다는 말이다.

판돈

최근 노동부의 ‘비정규직 활용 전략 사용주 조사 보고서’를 봐도 많은 기업

주들이 비정규직 해고와 외주화를 일시 중단하고 ‘이랜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투쟁은 그야말로 커다란 판돈이 걸린 “이랜드 간판을 내리느냐, 민주노총의 깃발을 내리느냐”(이석행 위원장)의 투쟁이 됐다.

이 투쟁은 비정규직 투쟁과 조직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고, 보수 언론도 감히 ‘배부른 정규직 귀족노조’라고 연대 투쟁을 공격할 순 없을 것이다.

만약 이 투쟁이 요구안의 쟁취라는 완전

승리를 거둔다면, 그것은 노동운동이 힘의 균형에서 우위를 차지하며 대대적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차별에 억눌려 온 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몰래 울면서 설움을 견디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를 받고 절망하던 노동자들이 이 투쟁의 성패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도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처럼 싸워보자’고 속삭이고 있을 이들에게 통쾌한 승리를 보여 주자. 그것은 역사적인 투쟁 물결을 촉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세의료원 파업 평가

아쉽지만 패배는 아니다

28일간에 걸친 연세의료원 파업이 8월 6일에 끝났다. 타결 내용은 ‘임금 3퍼센트 인상, 위로금 30만 원 지급, 비정규직 해당자 1백68명 중 39명 정규직화, 간호등급 상향은 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신축 암병동의 다인병실 비율 60퍼센트로 확대’ 등이다. 민 · 형사상 고소고발 취하와 인사상 불이익 금지도 구두 합의했다.

이것은 노조의 애초 요구에 비하면 미흡하다. 무노동 무임금도 적용됐고, 사측은 고소고발 · 손배도 취하지 않겠다며 뒤통수를 치고 있다.

연세의료원 노동자들은 2005년 4월에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처음으로 ‘민주파’ 집행부를 세웠고 그 기세를 몰아 잇단 승전보를 올렸다. 2005년과 2006년에 연세의료원 노동자들은 파업 협박만으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노조원도 3천 명에서 3천8백 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올해 사측은 악명높은 노조 파괴 전문가를 고용하고 반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결국 연세의료원 노동자들은 18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파업 기간인데도 외래 환자 접수를 줄이지 않아 적체 현상을 유도해 환자들로 하여금 파업을 공격하도록 부추겼다.

파업이 3주차에 접어들 무렵 일부 환자와 보호자들이 노조에 파업 중단 서명지를 전달하는가 하면 때맞춰 <조선일보> 등이 파업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 때 노조 지도부는 좀더 적극적인 파업 전술을 채택하지 못하고 며칠간의 ‘재택파업’으로 후퇴했다.

7월 30일, ‘재택파업’을 마치고 돌아온 노동자들을 기다린 것은 ‘직장폐쇄’였다. 소수가 병원 로비 재점거를 주장했지만 파업대책본부는 격론 끝에 거점을 연세대 캠퍼스로 옮겼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사측은 노동자들을 개별적으로 회유했고 파업 이탈자가 늘기 시작했다. 결국 지도부는 사측의 부분적 양보안을 수용하며 파업을 끝냈다. 파업이 고비를 맞았을 때 지도부가 좀더 적극적인 전술을 채택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쉽다. 한국노총 지도부가 기대할 것도 없었지만 민주노총 차원의 연대가 실질적이지 않았던 것도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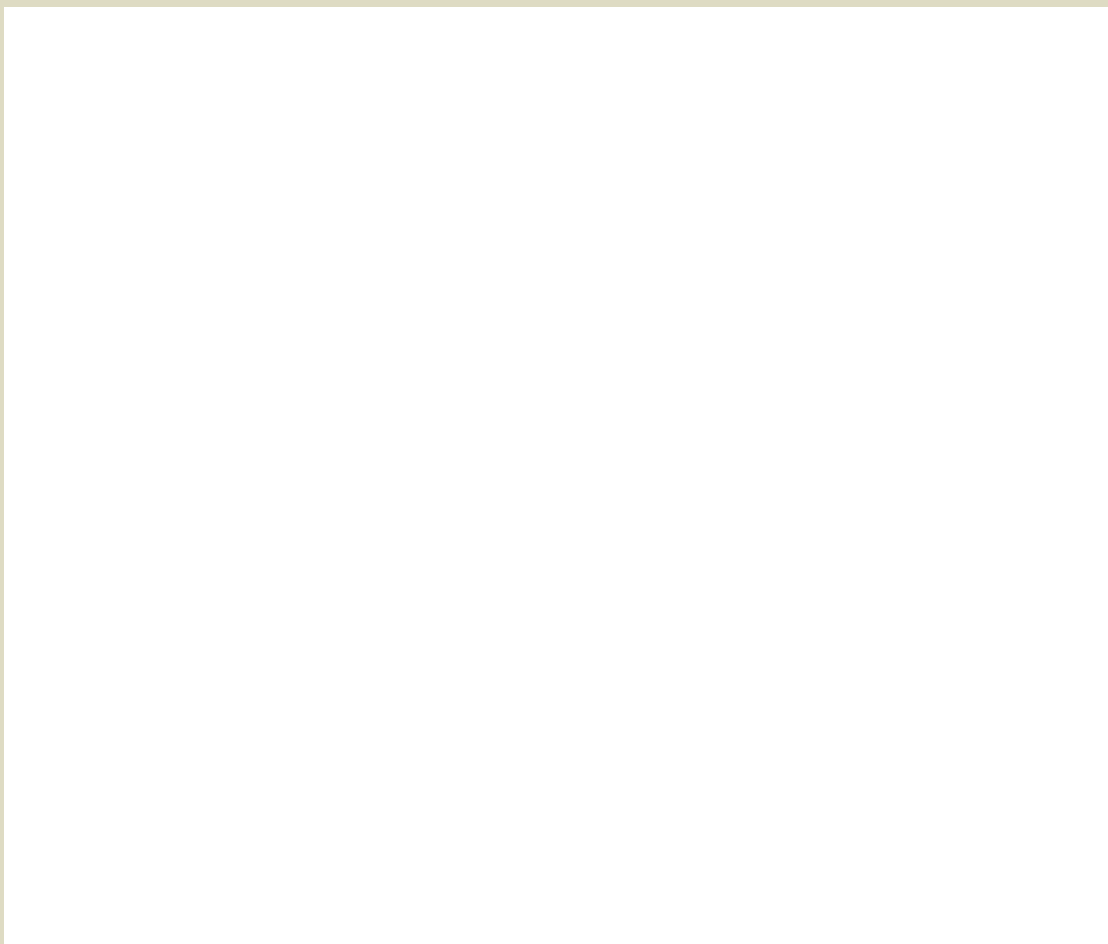
그러나 18년 만에 무려 28일에 걸쳐 끈질긴 파업을 벌였다는 점은 큰 의의가 있다. 노동자들의 투지와 자신감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다. 애초에 노조의 ‘3대 선결조건’에 대해 논의조차 거부하던 사측이 입장을 바꾼 것도 노동자들의 압력이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일보>가 이번 파업을 ‘노조의 백기 투항’인 것처럼 묘사한 것은 왜곡일 뿐이다.

간호부원장도 “파업 끝나니까 부서마다 부서장이 두 명이 됐다. 하나는 병원이 임명한 부서장이고 다른 하나는 노조 대의원”이라고 파업 이후 달라진 분위기를 인정했다.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변경하자’, ‘재파업에 들어가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세의료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제 시작된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것인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1년여 만에 한국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했고, 북한은 '악의 축'으로 지목됐다. 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의 배경이 된 2.13 합의는 세계 반전 운동이 부시를 이라크 수렁에 빠뜨린 결과였다



김하영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남북 간의 긴장과 대결과 충돌보다 대화의 운동에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반도는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최고로 중무장한 지역이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때문에, 또 이를 이용한 남북 정권들의 억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아 왔다. 한나라당 등의 보수 우파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거의 본능적으로 반발하며 냉전적 대결주의를 드러낸 것은 역겨운 일이다. 비록 남북 정상회담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약속 빠르게 입장을 바꿨지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너무 양보하면 안 된다', '만나서 할 말은 해야 한다'며 화해가 아니라 되레 싸움을 주문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광범한 정서는 이와 반대로 한반도에 진정으로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바람과 정서에 깊이 공감한다.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이다.

기대와 좌절

사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대중의 기대는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에 비해

훨씬 낮다. 1차 정상회담 때는 분단 이후 남북 정상의 첫 만남이어서 지금과 비교하기 어려운 기대가 있기도 했지만, 1차 정상회담의 학습 효과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크게 떨어뜨린 면도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기대는 7년의 세월 속에서 부정적으로 입증됐다. 이산가족들조차 고향 방문은커녕 편지조차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없으니, 남북 보통 사람들의 자유 왕래는 말할 것도 없다. 2000년 당시 민주노총은 남북 정상회담의 4가지 의제 가운데 하나로 남북 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제기했지만, 정상회담 이후 7년 동안 남북 모두에서 빈부격차가 급격히 증대했다. 남북 화해와 민중의 생활수준 향상 사이에 모종의 연관이 있다는 기대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이밖에도 남북 정상회담에 걸렸던 여러 가지 기대가 무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공동선언이 그 직후 시작된 한반도 긴장을 전혀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긴장은 남북 대결의 역사적 유산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의 여파였다. 부시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시켰고, "고농축 우라늄" 의혹을 제기해 남북 정상회담 2년 만에 "2차 북핵 위기"를 조성했다. 한반도 위기가 북한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오는 게 명백했지만, 김대중의 대북 정

남북·북미 관계와 중동 전선

2차 남북 정상회담은 2·13합의 이행 국면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1차 때처럼 미국 정부 강경 정책의 유탄을 맞는 일은 없을 거라고들 한다.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 개선 속에서 발전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낙관만 하기는 어렵다. 2·13합의는 중동에 전념하기 위한 부시의 일시적 양보였지, 부시 정부가 일관된 대북 정책을 새로 세웠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2·13 합의의 이행 수준은 정확히 말해서 미국이 북한에 보상을 해주고 핵 시설을 폐쇄시킨 것이다. 여기까지는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미 양측이 한 번 해본 일이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었다. 그런 데도 일정이 지켜지지 못했다. 북한측의 핵 목록 신고·불능화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의 연계 행동 일정이 정해져야 하는 지금부터는 난관이 훨씬 많을 것이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

국가역병 종료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한 불능화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부시 정부는 북핵 위기를 일단 봉합했다고 생각해 시간 끌기로 나올 수도 있다. 클린턴 정부가 제네바 합의 이후 그랬듯이 말이다.

앞으로 북미 협상은 위기와 해소가 갈라드는 불안정한 과정이 될 수 있고, 남북 관계도 이것에 연동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양보(북핵 봉합 시도)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북미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중동 전선의 상황에 달려 있다. 미국이 중동 전선에서 여유를 찾는다면 다른 지역으로 전선을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북미 사이의 협상이 순조로워 보이는 동안에도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정령 반대 운동에 힘을 빼지 말고 집중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위선

의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지만,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 경제 협력, 군비통제, 통일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도 "4대 근본 문제"(참관지 문제, 국가보안법, NLL 재설정,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열리고 평화 관련 의제도 꽤 있지만, 노무현 정부의 전력은 한반

미국이 북한을 압박할 여력을 간접으로 키워 주는 셈이다. 노무현 정부의 위선은 국가보안법 문제와 진보 운동 탄압에서도 잘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한하면서 8·15 특별사에서 양심수를 제외하고,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 발표 뒤에도 통일선봉대를 연행하는 등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대중 행동의 필요성

지난 남북 정상회담의 경험은 "북한의 위험"을 근거로 유지돼 온 국내 억압이 정상회담을 통해 저절로 완화되거나 철폐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줬다. 한반도 평화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평화의 '테러와의 전쟁', 동북아 군비 경쟁, 한미동맹 재편처럼 지역적·세계적 차원의 문제들과 연관이 깊어진 오늘날은 더욱 그렇다. 한반도 평화의 필수 요소들이 이 문제들은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북미 협상을 통해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고 북미 또는 남북 협상에 큰 환상을 품는다면 진보 운동은 자칫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 있다. 북미 또는 남북 간 협상 의제로 돼 있는 문제들 또는 우리의 바람이 협상 테이블에서 잘 해결되길 손놓고 지켜보는 것이다. 국가 권력을 쥔 협상 당사자들에 비하면 우리 운동이 얼마나 작은지 절감하면서 말이다.

"현 정세의 특징은 북미 등이 정부와 정부 간의 운명을 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그 정세에는 핵무기가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민간 진영이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다."(민경우, 통일운동 노선에 대한 문제제기)

북한 당국은 북미 협상에서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데 만족할 수 있다. 미국 제국주의의 칼날이 자신을 향하지만 않는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를 인정하고, 때로는 도우면서 말이다. 3월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회의에서 북한측 대표는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친구 관계를 맺고 싶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힐 차관보에게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북한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반면, 진정한 평화를 열원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체제 보장을 넘어, 상시적 전쟁 체제에 들어선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을 패배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오로지 "민간 진영"이 대중적으로 "개입"해야만 성취 가능하다. 국제 반전 운동은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 줬다.

진보 진영은 정상회담 관망식으로 물러앉기보다 대화국면이 조성하는 조건을 이용해 대중행동을 건설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아베의 참의원 선거 참패

신자유주의와 군국주의에 제동을 건 일본 민중

얼마 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참패했다. 기쁜 일이다. 선거가 치러진 1백21석 가운데 자민당은 겨우 37석을 얻었다. 민주당은 60석을 얻어 제1당이 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아베가 추진했던 군국주의 부활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의구심과 불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고이즈미의 '개혁' 이후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이 본격화됐고, 아베도 노동자 "과로사"를 "축진"할 노동기준법을 개정하려 해 왔다.

5천만 명에 이르는 국민연금 기록이 사라진 여처구니없는 사건은 아베표 '개혁'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아베는 이 사실을 알고도 "사회적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며 은폐하려 했는데, 그의 태도는 오히려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일본 민중의 삶이 망가져 왔다. 소득재분배 후 지지계수를 보면 일본은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미국식 사회에 가깝다. 일본은 0.322(2001년 기준)로 미국 0.368(2000년 기준)에 근접했다. 빈곤률은 1995년 8퍼센트에서 2005년 15.3퍼센트로 늘었다(덴마크는 4.3퍼센트). 일본은 OECD 선진국 중 세 번째로 빈곤률이 높은 곳이다.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34.6퍼센트로 늘었고, 특히 여성 노동자는 50퍼센트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1억 총중류(總中流: 국민 대다수가 중산층)'의 신화는 무너지고, '격차사회(格差社會:양극화 사회)'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아베는 고이즈미의 '우정 개혁'과 비슷한 신자유주의 포퓰리즘 쇼로 재미를 보려 했다. 고이즈미가 "공무원들의 천국을 깨뜨리겠다"고 했던 것처럼, 아베는 "공무원이 월흥"이라며 사회보협정을 해체하려 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아예 지방공공단체공무원노조는 민주당에게 50만 톨을 몰아 줬다.

기회

또, 주류 정치 변동에서 미일 군사동맹, 헌법 개정 등 일본의 국가 전략 문제는 늘 핵심적인 것이었다. 예를 들어 '1955년 체제'[자민당 독주 속에서 사회당이 제1야당으로 대립하는 구도]는 미일 안보조약 파동의 여파로 만들어졌고, 1991년 이라크 전쟁 개입 논란 후폭풍으로 붕괴했다. 그 결과 자민당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야당에 정권을 내줬다. 사회당은 공명당, 자민당 등 보수 정당들과 무원칙하게 연합 정부 구성을 추진하더니 스스로 분열하고 우경화하다가 결국 붕괴했다. 탈냉전 이후 주류 정치의 유동성은 점점 높아졌다.

그러나 진보 정치의 토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은 조사기관마다 다르지만 모두 찬성보다 높다. 게다가 반대 여론은 해마다 늘어 왔다. [니케이] 조사를 보면 반대 여론은 2005년 45.7퍼센트에서 지금은 55.8퍼센트로 늘었다. '헌법 9조' 개정 반대 운동 연합체인 '9조의 회'로 집결한 단체·모임이 2005년에는 3천여 개였지만 지금은 6천 개가 넘는다.

일본의 한 좌파 저널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기성 정당과 독립적인 진보 후보가 도쿄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이 후보는 이라크 반전 운동을 이끌었던 '월드 피스나우' 등의 젊은 활동가들의 지지를 받았다. 오키나와에서도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됐다.

이는 일본에서 새로운 진보 정치 세력을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내년에 일본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공동캠페인이 성공을 거둔다면 새로운 진보 정치의 토양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 3월 21일 열린 일본의 국제반전공동행동 집회 -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반대한다

무니 쫓기는 그들을 지지했던 민중과 모순을 빚을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선거에서 미일 군사동맹 강화, 헌법 개정 같은 '정치' 문제는 핵심 쟁점이 아니었으며 대중도 여기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5월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69퍼센트가 넘는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헌법 개정 문제를 판단 근거로 삼겠다고 한 바 있다.

공무니 쫓기

민주당은 대중의 불만을 어느 정도 수렴했다. 국가보장 연금통장 도입, 어린이 수당 지급, 농가소득 보장제 실시, 비정규직 차별 시정, 파병 자위대 철군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신자유주의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에 진지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민주당은 자민당 이탈파와 옛 사회당 우파가 결합해 만든 잡탕 정당이다. 민주당은 해마다 경단련을 찾아가 자기들이 정권을 담당할 능력이 있으며, 일본 재벌들의 이익을 거스르지 않을 것임을 입증해 보이며 애써 왔다. 또, 민주당은 군국주의를 부추길 헌법 개정에도 근본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자민당 우파를 출신인 당대표 오자와 이치로는 1990년대 초부터 군국주의 부활을 부추긴 '보통국가론'의 주창자다.

선거 승리 직후 오자와 이치로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리 되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양에 파견된 해상 자위대는 올해 안에 철수해야 한다. 이는 일본내 반전 압력이 상당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다수의 지배자들은 그가 동맹간 협력을 어지럽히고, 이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고 나간 것을 불쾌해 한다. 벌써 민주당 안에서는 이권이 터져 나왔다. 전 대표 마에바라는 "[전쟁에서] 일본이 빠지는 것은 국익에 반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특별조치법을 대신해 새 법 제출을 검토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사실, 오자와 이치로 자신도 일본 국가전략이 미일 동맹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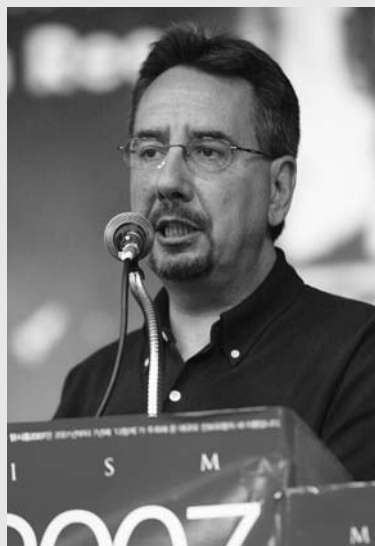
민주당의 신자유주의적 본질과 미일 군사동맹 공



러시아 혁명을 승리로 이끈 레닌, 트로츠키 등 볼셰비키 당원들

다시 듣는 맑시즘 2007 ①

사회 변혁의 전략과 전술



존 리즈는 영국의 급진정당 '리스펙트'의 사무총장이다

[편집자] 맑시즘 2007에서 존 리즈와 린지 저먼이 한 연설들을 4주에 1번씩, 네 차례에 걸쳐 실을 예정이다. 이 글은 그 첫 순서로 존 리즈가 연설한 '사회 변혁의 전략과 전술'을 녹취한 것이다.

- ① 사회 변혁의 전략과 전술(존 리즈)
- ② 사랑, 결혼, 그리고 가족(린지 저먼)
- ③ 현대 제국주의의 정치와 경제(존 리즈)
- ④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린지 저먼)

전략 · 전술의 첫번째 교훈 “조직으로 몽쳐야 한다”

전략과 전술은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이 처한 조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흔히 노동계급의 이해관계와 의식이 사뭇 다르다는 데서 비롯합니다. 우리는 노동계급이 계급투쟁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 시기에 대다수 노동자들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익 평론가들과 학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당신들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사회주의와 직결된다고 하지만, 노동자들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것은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들에게 투영하는 환상일 뿐이야.”

그러나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의식 간의 차이는 사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늘 접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흡연자들을 봅시다. 이

들의 이해관계가 어디 있는지는 너무나 명확하지요. 모든 담배갑에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신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의식은 사뭇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어쨌든 담배를 피웁니다. 이 사회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압력과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일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반대하거나 보수 정당에 투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이해합니다. 그 영향 때문에 일부 노동자들은 노조에 반대하거나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그들의 실제 이해관계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즉, 노동계급의 의식은 늘 복합적이고 모순돼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때때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파업에 참가하고, 사회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압력은 때때로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끅니다. 따라서 우익들이 바라는 노동자들의 모습, 즉 항상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자본주의적 가치를 찬양하며, 사용자들이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전혀 현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ана키스트들이 바라는 노동자들의 모습도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ана키스트들은 노동자들이 언제나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고, 자생적으로 반란에 나서고, 늘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봅니다.

진실은 이 양극단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일부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조건에서, 즉 다른 장소, 다른 시간, 다른 쟁점에서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에 순응하려 하지요. 즉, 노동계급의 의식은 늘 불균등합니다.

불균등

레온 트로츠키는 이 현실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젊었을 때 만난 5명의 노동자들을 통해 사회주의 조직이 필요한 이유를 모두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만난 첫번째 노동자는 훌륭한 투사였습니다. 그 노동자는 늘 파업에 적극적이었고, 사용자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싸웠습니다. 또, 인종차별과 여성차별에 언제나 항의했고, 사회주의를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완전히 반동적인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조에 대해 적개심을 불태웠고, 성차별주의자이자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다. 심지어 죽어서도 천국 정문에서 파업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파업 파괴자로 활동할 준비가 돼 있는, 진정으로 반동적인 노동자였죠. 그리고 나머지 3명의 노동자들은 이 두 노동자 사이에서 오락가락했습니다. 때로는 사회주의 노동자 편에서 반동적 노동자를 고립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반동적 노동자 편에서 사회주의 노동자를 고립시키기도 했습니다.

사회주의 조직의 임무, 즉 사회주의 조직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사회주의 노동자들에게 자신감 · 조직 · 사상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노동자는 중간에서 동요하는 노동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반동적 노동자를 고립시킬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반동적 노동자가 사회주의 노동자를 고립시키는 상황을 막을 수도 있지요.

따라서, 전략과 전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최초의 교훈은 전투적 소수, 계급의 선진적 소수가 게오르그 루카치가 말한 대로, “조직으로 몽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전투적 소수가 독자적인 모임을 갖지 않고, 독자적 목소리가 담긴 기관지를 발행하지 않고, 통일된 선동과 전술을 제시하지 않고, 하나의 조직으로 몽쳐 있지 않다면, 중간에서 동요하는 노동자들을 이끌 기회와 능력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지도 않겠지요.

공동전선 - 다수의 노동계급과 연관 맺는 원칙적 방법

이것은 사회민주당이나 노동당의 조직 관과 매우 다릅니다. 사회민주당이나 노동당은 전투적 소수를 조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동계급 전체의 의식을 반영하려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들은 노동자들에게 적대적인 사회 환경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불균등하고 혼란된 의식을 그저 반영하려 할 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단지 선거에서 이기는 것뿐이라면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는 데 필요한 것은 현재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싸우는 소수를 지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회민주주의 정치인들은 흔히 유권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지요. 그들은 “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이주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라고 말하는 유권자에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하고 맞장구칩니다. 그러나 “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우리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에 결사 반대합니다”라고 말하는 유권자를 만나면, 이 때도 그들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하고 맞장구칩니다. 또 다른 노동자가 그들에게 “나는 노동조합을 전적으로 지지해요”라고 말하면, 역시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하고 맞장구칩니다. 누군가 “나는 노동조합을 결사 반대합니다”라고 말해도 이들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하고 맞장구칩니다.

그러나 혁명정당은 이와 달라야 합니다. 혁명정당은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다른 노동자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전투성을 고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혁명정당은 전투적이고 조직된 소수인 계급의 전위가 다수의 노동계급과 연관 맺는 원칙적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제1차세계대전이 끝나고 이탈리아 공산당이 창당될 때, 공산주의자들은 이탈리아 사회민주당, 즉 사회당에서 분열해 나왔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사회당의 지도자는 투라티였지요. 레닌은 이탈리아 공산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투라티와 단결하려면, 투라티와 결별해야 한다.” 레닌은 이탈리아 공산주의자들에게 전투적 소수의 독자적 정당, 계급의 전위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공산주의자들은 독자적 정당을 건설하자마자, 여전히 투라티를 따르며 사회당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행동을 통해 연관 맺을 방법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공동전선 정책의 핵심입니다.

전위 정당의 전투적 소수는 아직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지만 특정 쟁점들에서 함께 행동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과 행동을 통해 단결할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독자적 조직을 건설하면서도 개량주의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직 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과 전쟁, 노동조합과의 연대, 이주노동자와의 연대, 인종



혁명정당은 현실의 운동에 개입하며 집단적 투쟁의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사진은 2007년 6월 반전 집회

차별 반대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공동전선을 통해 우리 정당의 당원이 아닌 노동자들과 과도 많은 쟁점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달리 말해 우리는 전투적 소수를 조직하는 것과 또 그 소수가 다수의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것, 이 두 길을 모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란 참으로 어렵지요.

종파주의와 기회주의

여기엔 두 가지 위험이 따릅니다. 첫째는 종파주의입니다. 이것은 광범한 운동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둘째는 기회주의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전투적 소수를 결집해 독자적 조직을 건설하는 과제를 잊는 것이지요.

예컨대 1921년에 독일 공산당은 3월 행동을 조직하는 데서 종파적 오류를 범했습니다. 광범한 노동계급 운동의 정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총파업을 호소한 것입니다. 독일 공산당에게는 총파업이 필요하다는 당위적 관점만 있었을 뿐, 전체 노동계급의 실제 의식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없었습니다. 노동계급이 공산당의 총파업 호소에 호응하지 않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산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실업 노동자들을 동원해 취업 노동자들이 일을 못하도록 공장 정문에 바리케이드를 쌓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노동계급과 공산당 모두에게 재앙이었습니다.

1926년 총파업 당시 영국 공산당이 범한 오류는 정반대 사례입니다. 정부의 압력에 밀린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총파업을 중단하자, 영국 공산당은 이에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트로츠키는 당시 영국 공산당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정부는 우파 노조 지도자에게 압력을 넣고, 우파 노조 지도자는 좌파 노조 지도자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좌파 노조 지도자는 현장조합원 운동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넣고, 현장조합원 운동 지도자들은 공산당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결국 맨 마지막에 공산당이 굴복했습니다. 당시 영국 공산당은 독립적 소수로서 행동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넘어지는 도미노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나머지 도미노들을 일으켜 세우는 구실을 했어야 했던 것이지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기회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려 줍니다. 그 위험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정부 같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투쟁 속에서 바로 우리 곁에서 있는 사람에게서 오기 마련입니다. 만일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이 저에게 전화해 “전쟁 반대 선동은 그만해도 될 것이요, 왜냐하면 나는 전임 총리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요”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저에게 전혀 압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좌파 노동당 의원들을 구슬리고, 좌파 노동당 의원들은 전쟁저지연합을 지지하는 노조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또 이들이 자신의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결국 현장조합원들이 우리에게 고든 브라운이 한 것과 똑같은 말을 한다면, 이것은 전쟁저지연합에 진정한 압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공동전선을 일종의 다리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엔 두 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다리를 놓지 않을 위험입니다. 1921년에 독일 공산당은 자신과 나머지 노동계급 사이에 다리를 놓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다리를 놓으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다리를 옮겨다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사람들을 이끌어 다리를 건너게 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리를 건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주의 조직은 어떠한가?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정당을 건설하면서도 종파주의와 기회주의의 위험을 피해 공동전선 전략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운동의 역사를 이해하는 조직을 건설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1921년 3월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을, 또 1926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을 이해한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이 조직은 우리가 당면 문제를 다루는데 필요한 언어, 관점, 공통의 이론을 제공할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독일 급진 운동에서 로자 룩셈부르크와 카를 리프크네히트가 매우 긴밀히 협력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카를 리프크네히트가 매우 용기 있는 지도자임에는 틀림없지만, 동시에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리프크네히트가 잡자리에 들기 전과 자고 일어난 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자 룩셈부르크가 카를 리프크네히트에 대해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 우리가 두 입장 사이에서 동요하는 누군가를 본다면, 우리는 그에게 “너, 리프크네히트처럼 행동하지 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룩셈부르크와 리프크네히트를 알지



1917년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트로츠키는 소비에트를 “공동전선의 최고 형태”라 지칭했다

11면에서 이어짐

못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실수가 과거에도 저질러진 실수임을 깨닫기 힘들 것입니다.

둘째로 조직에는 단지 역사와 전통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투쟁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조직원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현실의 투쟁에 관심이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다룰 때 판단의 근거가 될 경험을 얻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20년 넘게 투쟁에 관여하고 있는 활동가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대중 운동과 대중 파업이 어떤 것인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은 1921년과 1926년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뿐 아니라 오늘날 투쟁과 노동계급 운동의 산 경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 관한 토론을 들었습니다. 연사인 최일봉 동지뿐 아니라 당시 자동차 공장 노동자나 학생이었던 활동가들의 경험도 들을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운동 안에서 ‘다함께’가 하듯이 집단적 투쟁의 경험을 종합할 수 있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셋째, 우리는 규율있고 민주적으로 집중된 조직을 건설해야 합니다. 규율 없는 경험은 무용지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민주집중제를 스탈린주의처럼 지도자가 회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레닌은 민주집중제를 완전히 다르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토론의 자유에 이어서 철저한 행동 통일이 뒤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완전한 토론의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그 모든 집단적 경험과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고, 진정한 역사적 경험으로 승화될 뿐 아니라 우리의 현재 조건과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적용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중앙집중주의가 없다면 민주적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결정을 내렸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민주주의일 수 있었습니까? 민주주의라면 우리가 결정을 내리면 모두 그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민주적 중앙집중제

우리가 집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한 가지 결정을 내렸고 그것이 실수였다 칩시다. 만약 조직의 절반이 한 가지 실천을 하고 나머지 절반이 다른 실천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분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

다. 따라서 실수를 범하더라도 우리는 집단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트로츠키가 말한 다섯 명의 노동자들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사회주의 노동자가 이렇게 말한다 칩시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해. 아니지, 저렇게 해야 해. 아니지 이렇게 해야 해.” 그럼 다른 세 명의 노동자는 “도대체 뭘 하자는 거야? 차라리 반동적 노동자의 말을 듣는 게 낫겠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조직이 단결돼 있지 않다면 결코 아무도 지도할 수 없고 그걸로 끝장입니다.

당을 건설하고 노동계급 다수와 관계를 맺는 것은 노동계급의 전투성과 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깨닫는 것과 그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공격당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공격당할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에 맞서 싸우려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이번 토론이 끝난 후 제가 건물 밖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야구 방망이를 든 미치광이가 부리나케 저한테 달려온다고 칩시다. 그가 저를 공격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미치광이는 야구방망이가 있는데 저는 맨손입니다. 저는 겁이 나서 도망갈 것입니다. 때때로 거대한 힘에 의해 공격당하면 노동자들은 도망갑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고 저도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지 한동안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기관총을 들고 있고 미치광이는 야구방망이밖에 없다면 저는 반드시 미치광이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저는 그가가 가까이 오기 전에 해치울 수 있습니다. 노동계급 운동에서 자신감을 가진다는 것은 때로는 누가 야구방망이나 기관총을 가지는지와 연관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누가 승리에 필요한 조직·사상·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와 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혁명 조직과 공동전선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리 발언

어떤 분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권력을 잡는 것인지 다수를 획득하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사실, 둘 다입니다. 다수가 권력을 잡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례로 러시아 혁명과 모든 진정한 노동계급 혁명에서는 권력을 잡은 것은당이 아니라 노동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의 경우, 권력을 잡은 것은 볼셰비키가 아니라 트로츠키가 공동전선의 최고 형태라고 표현한 노동자평의회였습니다.

사실, 일부 볼셰비키는 볼셰비키가 군사작전의 주체가 돼 봉기를 일으키고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닌과 트로츠키는 “아니야, 소비에트, 즉 노동자평의회가 봉기를 주도하고 권력을 잡아야 해”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볼셰비키가 소비에트의 다수를 자기편으로 획득하지 못했다면 소비에트는 결코 10월 혁명을 일으킬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당과 공동전선의 결합인 것입니다. 당은 혁명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당 없는 소비에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소비에트 안의 당은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고, 혁명을 성공시킨 것은 소비에트 전체였습니다.

그런 궁극적 변화가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아주 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등장해 온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례로 인류 역사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균기대 수명이 47세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백년 간의 변화로 인류의 기대수명은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3백50년 전에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이 탄생했습니다. 당시에는 전 세계에 왕정과 독재밖에 없었습니다. 대의제 의회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혁명과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겪으면서 인류는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 통치자를 선출할 권리를 가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이제 항상 실천되지는 않더라도 광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치뿐 아니라 경제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은 일체의 민주주의도 존재하지 않다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성취한 것에 비해 더 작은 도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전의 혁명가들이 민주주의를 상상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었다면 우리라고 사회주의를 상상하고 그것을 성취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고 조직하고 그들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공동전선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공동전선 활동에 지쳤다는 보건의료 활동가의 말에 공감합니다. 저도 공동전선 활동에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타협에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공동전선 활동에 지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전쟁저지연합을 건설하지 않았다면 하이드파크에 2백만 명이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

다. 단지 8천 명의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들만 있었을 것입니다. 공동전선의 필요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이 직면한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며 우리는 다만 그것을 최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지 부시가 9·11 이후 보인 반응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에 반대하는 대중 운동을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혁명가로서 전쟁은 나쁘다고 선전만 할 것인가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쪽에 서서 자본주의가 전쟁을 만들고 전쟁은 나쁘고 자본주의도 나쁘다고 선전만 했다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토니 블레어를 몰아내지 못했을 것이고 노동자들이 우리를 신뢰하지도, 그 중의 일부가 혁명정당에 가입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의료 활동가 동지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의 일부를 이끌고 우리 적을 무찌르는 것이 한 쪽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비난하는 일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본 ‘순수한 자본주의’의 실상

나는 최근 중국 광저우를 방문했다. 광저우는 베이징, 상하이와 함께 중국 3대 도시다. 세계 최대의 의류·신발·가죽제품 생산지로서 인류가 입고 있는 옷의 50퍼센트 이상을 생산한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화려한 발전 속 실상은 매우 끔찍하다.

중국 서부 대륙의 청년들은 달랑 속옷 몇 장만 들고 하루에도 수천 명씩 광저우로 몰려든다.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 대부분이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반면 기업가들은 너무나 쉽게 돈을 벌고 빈부격차가 커지니, 광저우의 치안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다.

택시 운전사 옆자리와 뒷자리에는 쇠창살 칸막이가 있다. 택시 안에서 현금을 빼앗으려는 폭행사건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은행이 문 닫을 시간에는 은행과 정부가 고용한 안전요원들이 군복을 입고 시민들을 향해 장총을 겨누고 있다.

사장들 사이의 이권다툼으로 대낮에도 청부살인이 종종 일어난다. 7백 위안(10만 원)이면 청부살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이윤지상주의 사회를 유지하려고 억압적인 조치를 편다. 6개월 전에 광저우 시내에는 개인 오토바이 택시가 많았다. 오토바이 택시는 직장을 갖지 못한 청년들의 유일한 밥벌이 수단이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갑자기 오토바이 택시를 금지했고, 달리는 오토바이 택시를 쇠파이프로 때려잡기 시작했다. 광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식당이 없어 길거리에 서서 식사하고 있다

저우 시내 도로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청년들이 피범벅이 된 채 쓰러졌다.

광저우 노동자들은 보통 한 달에 1천5백 위안(2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이들은 햇벌도 들지 않고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3백50위안(5만 원)짜리 월세 방에 산다.

미성

의류 공장에는 열 살을 갓 넘긴 아이들이 팔뚝만한 먼지와 염색 약품 속에서 미싱을 돌리고 있다. 아이들은 음식쓰레기가 널려있는 공장에서 2위엔(2백60원)짜리 국밥을 허겁지겁 먹으며 밤새 일하고 잠도 공장에서 청해야 한다. 주로 한국과 아프리카 출신인 사장들로부터 폭언, 폭행, 성폭행을 당하거나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다.

우리 나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5천9백 원, 9천9백 원 초저가 의류”는 중국 어린 노동자들을 조작취한 결과물이다.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의류공장 노동자들은 서른 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매우 활발한 노동쟁의를 일으키고 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의류공장 라인이 멈춘다. 이들은 “하루 2시간 식사시간을 보장하라”, “임금을 (체불말고) 즉각 지급하라” 등을 요구한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단결이 생산을 멈출 수 있고 사장으로 하여금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의 경제개발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배우고 있다.

야만적인 자본주의 중국의 진정한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다.

강영만

연대 파업 호소가 비판받을 일인가?

8월 11일 민주노총 주최 이랜드 구탄 집회에서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은 내가 집회 연단에서 “민주노총의 연대 파업 호소” 주장을 했다고 욕설까지 하면서 비난했다.

이에 항의했더니 민주노총 한 간부는 “무책임하게 파업을 호소하면 뉴코아·이랜드 조합원들이 마치 공식 입장으로 알고 혼란과 분열을 자초할 수 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집회라는 공간은 참가자들이 투쟁의 전술과 전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

고 의지를 다지는 자리 아닌가. 그 과정에서 어떤 주장이 투쟁 승리에 가장 효과적인지 판단하고 토론과 논쟁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투쟁하고 연대하는 동지들 사이의 민주주의이며 단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일부 지도자들이 조합원들과 집회에 참가한 연대 동지들을 연설자들의 주장에 판단 없이 호응하는 부류로 생각하는 것은 유감이다.

지금 비판받아야 할 것은 연대 파업 호소가 아니라, 연대 파업 건설을 외면하는 태도다.

최영준

투쟁의 중심은 점거와 봉쇄여야

불매운동으로 [이랜드] “매출 제로”를 만들겠다는 방식은, 냉철하게 봤을 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 네티즌은 게시물에서 “우리 동네 반경 4백 미터는 모두 이랜드 계열사”라고 하기도 했다.

게다가 대중 의식은 모순적이다. 내심 이랜드 노동자들의 요구에 동의하면서도, 이랜드가 영업을 하고 있으면 싼 가격에 이끌려 그냥 간다. 이랜드 자본은 바로 그런 허점을 파고들기 위해 할인 쿠폰을 뿌리는 등 온갖 발악을 하는 것이다.

불매운동은 부차적인 것이자

손규석

외곽 지원이지, 투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투쟁의 중심은 당연히 점거와 봉쇄가 돼야 한다. 강력한 점거 파업을 통해 다시 투쟁의 중심을 되찾을 때에만, 불매운동이라는 외곽 지원도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눈앞에서 매장이 점거·봉쇄돼 영업이 불가능해지고 노동자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면, 그때 저들은 진정 자금 압박은 물론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낀다. 웬만큼 똥줄이 타지 않으면 교섭(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 것이 이랜드 자본이다.

화물연대 김동윤 열사의 염원

매주 어김없이 식구통 사이로 찾아 들어오는 <맛불>은 마치 전쟁기가 현장에서 곧바로 퍼올린 소식들을 전하는 느낌을 줍니다.

<맛불>은 진실을 알게 해 주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맛불>을 만들어 보내 주시는 동지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49호 [승주 기자가 쓴] ‘정유사와 정부 모두 고유가의 주범이다’ 기사에서 “2005년 한 화물운송노동자는 기름값 인상 때문에 분신까지 했다”라는 문구는 김동윤 열사가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생계의 고통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버려 죽음을 선택한 걸로 잘못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 펜을 들었습니다.

김동윤 열사는 화물연대가 건설되기 이전인 1999년 이미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꾸준히 활동하셨는

데 화물노동자들 중에서는 드문 경우입니다. 유서는 화물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가 유서에 핵심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저는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 지부장으로 활동 중에 지난해 우리 지

부 더위가 몇 배는 더 버겁게 느껴질 감옥에서 <맛불>을 읽고 과분한 찬사가 담긴 편지까지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유가에 초점을 맞춘 기사 맥락 상 생략했지만, 지적하신 대로 김동윤 열사는 진지한 투사였고 노동기본권을 바라셨을 것입니다.

다만 화물연대에 문의해 보니, 김동윤 열사는 유서를 남기

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경산지회 소속 사업장인 일지테크에서 28명의 조합원 전원이 부당해고된 것에 항의하는 투쟁을 함께한 이유로 지금 대구구치소에 와 있습니다.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선봉 투쟁을 전개하시는 <맛불>을 지지하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단결 투쟁!

2007년 7월 29일

대구구치소 독거에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 지부장 이오식 드림

지는 않으셨고 분신 직전 통화에서 “유가 보조금 환급금이 가압류 됐고, 기름값이 올라 너무 힘들고 못살겠다”는 유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난 14일 1년 6개월 실행을 선고 받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쪼록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승주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은 계속된다

나는 8월 8일에 증권노조 코스콤 비정규직지부가 주최하는 문화제에 다녀왔다. 코스콤 비정규직 지부는 비정규직 약법에 맞서 올해 5월 생겨난 신생노조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조건으로 내건 코스콤 비정규직지부의 투쟁은 증권 사무직 비정규직 노동자 최초의 투쟁이라는 의의가 있다.

코스콤 비정규직 동지들은 끈질기게 전투적으로 싸우는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배우려 하고 있었다. 이것을 보며 나는 이랜드·뉴코아 투쟁이 다른 투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연대발언을 통해 코스콤 정규직이 이 투쟁에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코스콤 동지들의 투쟁이 강력했기 때문

에 사측이 한발 물러선 것을 강조하며 앞으로 단호하게 투쟁한다면 두 걸음 세 걸음을 물러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박수를 받았다.

코스콤 동지들은 지난 7월 4일 40여 일간의 투쟁으로 ‘기본합의서’를 사측으로부터 받아냈다. 이것은 촛불집회를 열고 소식지를 뿌리고 대자보를 붙이고 나흘 간 파업을 하며 싸워 얻어낸 성과였다.

그러나 사장은 코스콤 동지들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를 외면하고 기존 합의마저 부정하는 기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증권노조 김은아 교선실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얻어낸 것은 대화의 물꼬를 텃다는 것이고, 진짜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김무석

서평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



리처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
(이한음 옮김, 김영사)

계몽주의 종교 비판의 한계를 보여 준 책

최일봉

사회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유전자 중심의 세계관을 설파한 《이기적 유전자》로 유명하다. 실제로, 이 책은 일부분에서 “DNA 마니아(탐닉)”(어느 과학사학자의 표현)를 그 나름으로 비판하고 있어도 전체적으로 그것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과 유색인종에 대한 사이비 과학과 우익의 편견을 분쇄한 걸작 《인간에 대한 오해》의 저자인 고(故) 스티븐 제이 굴드는 도킨스의 유전자 환원론을 비판했다. 동성에 유전자니, 반사회성 유전자니 하면서 각각의 특성마다 그에 상응하는 고유한 유전자가 있다는 생각을 배격하면서 굴드는 유전자가 아니라 유기체 수준에서 자연선택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사회생물학을 비판한 《우리 유전자 안에 없다》의 지은이 스티븐 로우즈 런던대 교수는 도킨스를 정설파 다윈주의자나 다윈 근본주의자라고 부르기보다는 “초다윈주의자”라고 부르기를 선호한다.(‘초ultra-’는 도가 지나쳐 아예 어떤 범위나 수준을 넘는 경우를 묘사할 때 쓰는 접두어다.)

로즈는 도킨스가 유전자와 유기체(유전자 운반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도킨스는 본다)의 분리를 상징해, 진화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궁색한 입장에 빠지게 된다고 비판한다.

도킨스의 생물학 이론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이 글을 쓰는 필자의 능력 밖이다. 다만, 그의 유전자 환원론은 맑스가

“기계적 유물론”이라고 부른 속된 유물론의 최신판 중 하나라는 점만 지적하고 싶다. 그는 종교 신이라는 현상조차 유전자와 비슷한 개념인 ‘밈’(meme)으로 설명하려 한다! 기계적 유물론의 전

형은 18세기 프랑스 계몽철학자들과, 맑스와 거의 동시대의 포이어바흐였다. 최근 한국에서 계몽철학자로나 그 후예들의 종교 비판서가 부쩍 많이 출판됐다. 도킨스의 이 책과 《악마의 사도》, “스피노자의 정신”이라는 필명의 저자가 쓴 《세명의 사기꾼》, 미셸 옹프레의 무신학의 탄생, 샘 해리스의 《종교의 종말》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샘 해리스의 책은 정치적으로 반동적인 입장 때문에 사거나 읽기에 돈이나 시간이 아까운 책이다.

기계적 유물론

이 순간 한국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아프가니스탄 선교봉사단 피랍사건과 관련해서도 인터넷에는 피랍자들의 선교 활동을 비난하거나 복음주의 기독교와 이슬람을 싸잡아 종교 자체를 매도하는 글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피랍 한국인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라서 납치당한 게 아니다. 〈뉴스위크〉가 파헤친 피랍 당시 정황은 납치범들이 외국인이라는 사실 말고는 피랍자들의 정확한 신분을 몰랐음을 보여 준다.

“미국이나 아프간 정부를 돕기 위해 여기에 오는 외국인들은 누구든 납치할 것”이라는 가즈니 지역 탈레반 사령관 압둘라잔의 말도 이 점을 확증해 준다(〈경향신문〉 8월 11일치).

이라크에서 오무전기 노동자가 살해됐던 일도 종교와 관계 있는 게 아니었다.

피랍자들을 비판하는 주장들은 미국과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반동적인 기능을 하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점령이라는 핵심 문제를 불명료하게 하고 지엽말단으로 빠지게 하는 부적절한 주장들일 뿐이다.

작금의 사태와 관련해 종교 비판에 열중하는 견해는 “신에 대한 망상”이 원체인 도킨스의 이 책에서 큰 원군을 만난 느낌일 것이다. 도킨스는 종교가 비이성적이고, 과학적 증거를 거부하고, 불관용을 고무하고, 아동 학대를 자행하고, 감수성이 강한 나이의 청소년들에게 혼란스런 세계관을 주입시킨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도킨스가 비판하는 종교는 무언가 현실의 종교 같지 않고 추상적인 한 다발의 교리 뭉치이다. 그는 경전,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 평신도들의 일상의 실천과 관념, 상이한 교파들 사이의 상이한 신조와 상이한 행동 등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뭉뚱그리고 있다. 역사유물론에 전혀 못 미치는 강단 종교사회학의 눈으로 봐도 그의 종교관은 실로 추상적이다 못해 공허하고, 공허하다 못해 바보 같고, 사실상 무지하다. 가령 그는 “아프간

탈레반과 미국 탈레반[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은 사람들이 경전을 글자 그대로, 또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 주는 사례”라고 말한다.

도킨스가 이슬람주의와 이슬람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시한다는 문제점은 잠시 유보하더라도,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근본주의(이슬람주의라는 용어가 좀 더 낫다)와 미국 기독교 근본주의를 일률적으로 다루는 것은 그 이데올로기들의 행위주체가 각각 행사하는 권력의 범위와 정도가 결코 동등하지 않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비과학적 인식의 발로이다. 과학은 질뿐 아니라 양도 똑같이 중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아무리 배타적인 기독교 분파도 예컨대 이교도를 가차없이 대량 학살하라는 히브리어 경전(“구약성서”)의 일부 구절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도킨스는 우익 기독교계 산하의 반이슬람 쇼비니즘 진흥 기관인 ‘이슬람 및 기독교 연구소’의 소장이라는 자의 말을 인용해 무슬림은 모두 원리주의자인 양, 즉 이슬람과 이슬람주의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양 말한다. 종교의 사회적 토대에 관심이 없는 것에서 비롯한 결과이다. 그저 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언제 어느 곳의 사람이든 조롱하듯이 비난하기만 한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초 덴마크 신문의 이슬람 조롱 만평 사태에 대해 “언론 자유” 운운하는 우익의 위선적 변호론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작태도 보인다.

압제

역사를 훑어보듯 일견해도 대규모 항쟁에는 언제나 종교인들이 참가했다. 1894년 농민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1987년 6월항쟁도, 심지어 1917년 러시아 혁명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도킨스는 권력 있는 종교인만 염두에 두거나 아니면 이들과 천대받는 종교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압제를 받는 민족의 해방 운동도 종교적으로 고취된 것이면 그저 맹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기각한다.

도킨스가 고스란히 재연하다시피 하는 계몽주의적 종교 비판은 대중이 종교 지도자들의 교리 주입에 순응하기 때문에 종교가 계속 존속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도킨스가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도 보이지 않는 점은 사람들이 왜 그런 걸 쉽사리 믿게 되는냐는 점이다.

아도르노는 “이른바 ‘정상적인’ 정신 상태인 사람들도 [점성술 같은] 망상의 체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실제 삶이 처한 똑같이 가차없고 똑같이 아리송한 체계를 그런 체계와 구별하는 게 너무도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리처드 도킨스

>>> 14면에서 이어짐

실제로, 지난 30여 년의 세계 경제 부진 상황에서 선진 공업국 중 유독 미국만이 실질임금 수준과 복지 수준의 절대적 감축을 겪었는데, 바로 이런 가장 냉혹하고 비정한 형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개인들의 영혼에 입힌 상처 때문에 미국에선 종교가 오히려 부흥했다.

아스피린

미국은 터키보다도 덜 세속적인 나라다. 2003년의 한 여론조사에 대한 답변을 보면, 80퍼센트의 미국인이 모종의 내세를 믿는다고 하고, 76퍼센트가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64퍼센트는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고, 71퍼센트가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자신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하고, 18퍼센트가 영혼재래설(가령 부활이나 환생 같은)을 믿는다고 한다.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추방하자는 운동이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도 종교가 급성장하고 있다. 한 세대(생물학적 세대) 만에 세계 최빈국 중 하나가 부국 대열로 올라서기까지 발생한 갖가지 사회 문제들, 특히 극단적인 빈부격차와 도농격차, 극단적으로 나쁜 노동조건, 극단적인 환경파괴, 세계 최고 수준의 사형집행이 보여 주는 혹독한 억압 등으로 해마다 2백만 명이 복음주의 기독교

교에 입교했고, 그래서 조만간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5분의 1인 3억 명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도킨스의 일면적인 종교 비난이 “종교는 대중(the people)의 아편”이라는 맑스의 유명한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맑스 시대에 아편은 합법이었고, 가장 효과적인 진통제였다. 그러므로 맑스의 말을 현대식으로 의역하면 “종교는 대중의 아스피린”이라는 표현쯤이 될 것이다. 특히, 이 문구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맑스가 종교에 대한 경멸적 비난이 아니라 종교의 사회적 토대 천명에 더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본질이 참된 실재를 획득하지 못했으므로 종교는 … 인간 본질의 판타지적 현실화이다. 그러므로 종교에 반대하는 투쟁은 간접으로는, 그 영혼의 향기가 종교인 세계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종교적 고통은 실제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자 실제의 고통에 대한 항의이기도 한 것이다. 종교는 천대받는 사람들의 탄식이요, 인정 없는 세계의 인정이요, 영혼 없는 상황의 영혼이다. 그것은 대중의 아편이다. 대중에게 행복에 대한 착각을 주는 종교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중의 실제 행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중에게 그들의 조건에 대한 착각들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착각이 필요한 조건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에 대한 비판은 종교가 그 후

광인 현세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에서)

이렇게 맑스는, 설득력 있는 논증으로 종교에 맞선 투쟁을 하려는(도킨스 처럼) 것은 헛수고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종교 신앙의 근원이 실제 인간 고통이라면 후자를 근원적으로 제거하지 않고 전자를 추방하겠다는 도킨스식 생각이야말로 망상이 아닐 수 없다. 맑스주의자들이 이런 망상을 공유한다면 그것은 단지 망상에 그치지 않고 중대한 정치적 오류가 될 것이다. 사회 하층민들이 가장 많이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들이 종교를 수용할 가능성도 가장 크다. 우리와 함께하려면 신앙을 버리라고 이 사람들에게 요구함으로써 이들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세우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일 것이다. 진정한 맑스주의 단체라면 무신론이나 무신앙을 회원 자격에 포함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
필자 최일봉은 대학원에서 종교사회학을 공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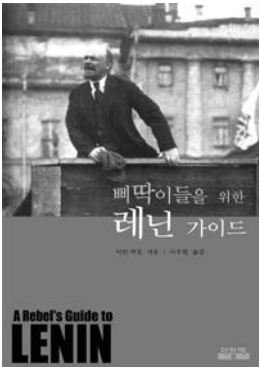
관련 도서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홍영남 옮김, 2006년 을유문화사 출판)
리처드 르윈틴, 《DNA 독트린》
(김동광 옮김, 2001년 궁리 출판)
스티븐 로우즈 외, 《우리 유전자 안에 없다》
(이상원 옮김, 1993년 한울 출판)
스티븐 제이 굴드, 《인간에 대한 오해》
(김동광 옮김, 2003년 사회평론 출판)

다함께가
발행한 소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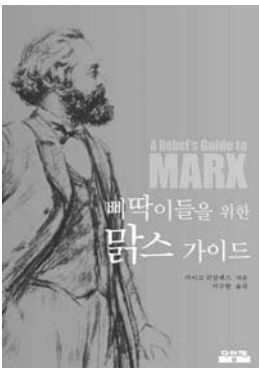
삐딱이들을 위한
혁명가 시리즈

각 권 2,500원



레닌 가이드

이안버철 지음



맑스 가이드

마이크 곤잘레스 지음



트로츠키 가이드

에스미 추나라 지음

지역 사회포럼

서울 남부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일시: 8월 22일(수) 오후 8시
연사: 김하영(주간 <맛불> 편집자,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저자)
장소: 방배1동 사무소(2호선 방배역 3번 출구)
참가비: 1천 원
문의: 010-2401-1987

서울 중부
‘테러와의 전쟁’과 아프가니스탄의 비극
일시: 8월 23일(목) 오후 8시

연사: 김어진
(민주노동당 파병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장소: 인권실천시민연대교육센터(한성대입구
역 6번 출구)
참가비: 2천 원
문의: 019-647-3309

부산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일시: 8월 24일(금) 오후 8시
연사: 한규한(주간 <맛불> 기자)
장소: 토즈(서면 마리포사 4층)

참가비: 2천 원
문의: 018-552-7696

대학 맑스주의 포럼

고려대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연사 : 김하영(주간 <맛불> 편집자,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저자)
일시 : 8월 23일(목) 오후 4시
문의 : 016-9353-5619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표시 하셨습니다?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5천 원
(신문값 20,000원 + 우송료 5,000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0,000원 + 우송료 10,000원)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을 중단하라

이정원(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정부는 적법 절차를 지켜 ‘인권 침해 없는’ 단속을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보름 동안에도 단속반이 공장 등의 건물에 들어갈 때 영장을 제시했다거나, 이주노동자들에게 보호명령서를 제시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정부는 법 질서 확립과 치안을 위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해

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집단이 아니다. 오히려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는 이유로 온갖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불법 체류자 밀집 우범 지역’이라고 부르며 이주노동자들을 범죄 집단인 것처럼 묘사한다. 그러나 오히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변호사의 조력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범죄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한층 더 숨을 죽이는 분위기다. 길거리에서 이주노동자에게 ‘너도 탈레반이냐’ 하고 비난하듯 묻는 사람들부터, 물건 팔기를 거부하

며 내쫓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04년에도 정부와 주류 언론들은 파병 정책에 대한 반감을 엉뚱한 데로 돌리려고 이슬람 사원을 비롯해 전체 무슬림 이주

2004년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 추방 정책 때문에 단속반에 끌려가는 이주노동자들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마녀사냥을 벌인 바 있다.

노무현 정부의 ‘테러와의 전쟁’ 동참은 국내에서 이주노동자와 무슬림들에 대한 억압과 인종 차별

강화를 낳았고, 이것은 시민적·민주적 권리 억압으로 이어졌다.

반전·반신자유주의 운동은 이주노동자 단속에 반대하는 운동을 지지해야 한다.

**고용허가제 3년 규탄!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보장을 위한 결의대회**
일시 : 8월 19일 (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역 광장
(집회 후 명동까지 행진)
주최 : 이주공동행동, 이주노조

뉴코아·이랜드 파업에 승리를!

강력하고 실질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 관련기사 6~7면

전지윤

뉴코아·이랜드 파업은 지난 한 달 넘게 한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다. 이 투쟁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더러운 본질을 폭로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몇 년 동안 진행한 ‘사회적 교섭’으로 하지 못한 일을 한 것이다.

그래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 중 절반이 시행 한 달밖에 안 된 비정규직법의 개정 필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도 “갓 시행된 법이지만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뉴코아·이랜드 파업은 사회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계약해지와 외주화 흐름을 차단하는 효과도 냈다. 하나은행은 비정규직 용역 전환을 철회했고 나아가 신세계 이마트는 ‘정규직화’를 발표했다. 이상수도 “외주화하다가 이랜드가 당해서 기업들이 손쉽게 외주화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뉴코아·이랜드 파업은 다른 부문 노동자들을 투쟁과 승리로 이끄는 ‘엔진’ 구실도 했다. 부산지하철 청소 노동자들, 청주대 청소 노동자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점거 파업에 들어갔고 곧 승리했다. <조선일보>



는 “회사에 몰매를 주고 백기향복을 강요하는 제2의 이랜드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

뉴코아·이랜드 파업은 정규직·비정규직의 아름다운 단결 투쟁이라는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뉴코아 정규직 조합원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공격은 곧 바로 정규직에 대한 공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해고는 나의 문제”라고 말했다.

무려 70퍼센트에 달하는 뉴코아·이랜드 투쟁 지지 여론도 MBC ‘PD수첩’ 방영

후 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뉴코아·이랜드 파업은 이미 정치적으로 승리한 것이다.

이 투쟁의 주역은 바로 여성·어머니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아줌마라고 무시당하며 시키는 대로 계약서에 사인하던 어제의 그녀들이 아니다.

경찰과 사측은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회식하려고 모여도 점거하는 줄 알고 영업을 중단할 정도로 이들을 두려워한다.

박성수는 지금 “투자 등급 유지와 유동

성” 문제로 속으로 “꽁꽁 앓고 있다.”(<조선일보>)

점거 파업으로 박성수가 입은 매출 손실은 무려 5백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홈에버 안양점·광주점 등을 매각하기 위해 내놓았다고 한다. 사내 메일로 직원들에게 “프린터 용지 한 장도 아끼자”고 하달하기도 했다.

반면 2차례 경찰력 투입 이후에도 여성 노동자들의 투지는 꺾이지 않았다. 2차 경찰력 침탈 이후에도 여성 노동자들은 7월 31일 면목점과 8월 2일 시흥점에서 3차 점거를 시도했다. 거의 성공할 뻔했던 이런 시도를 보고 노무현과 박성수는 등골이 오싹했을 것이다.

이제 정치적 승리를 요구안의 쟁취로 마무리하기 위해 더 단호하고 강력한 연대와 투쟁이 필요하다.

이랜드 투쟁 승리 전국노동자대회

8월 18일 (토) 오후 2시 서울역

전국 동시 다발 / 이랜드 전국매장 집중

투쟁

주최 : 민주노총